

## 명암리·鳴岩里

탕정면은 온양군 일북면의 지역으로서 울바위가 있어서 명암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행승리, 외금리와 아산군 원남면의 정좌리, 창덕리를 병합하여 명암리라하여 아산군 탕정면에 편입되었다. 명암리는 크게 행승이 장무기 정좌미 박지므레라는 4개의 마을로 나뉘고 부리기 가락바위 등과 같은 많은 자연부락과 함께 이루어졌다. 마을에서는 벼농사 외에도 주로 하고 있는 농작물로는 탕정면에서 유명한 포도재배이다.

<명암리 위치도>



☒ 행승이, 장무기, 정좌미, 부리기, 박지므레, 부리기, 가락바위 마을

명암리는 울바위가 있어 명암리라 하였다. 명암1리의 행승이라는 지명은 옛날 성인이 머물다가 갔으므로 이후 행승리라 부르게 되었으며 현재는 포도의 주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장무기 마을은 국사봉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장사가 나자 곧 날아서 벽 천장에 붙으므로 그 부모가 겁이 나서 그 겨드랑이에 붙은 것을 베어 냈다는 유래가 있어 장목이라 불리웠으며 현재는 명암2리로 불리어지고 있다. 정좌미 마을은 마을 뒤에 시루 모양의 통미가 있어 정좌미라 하였으며 뒷산은 국사봉이라 하여 임관등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국사를 논의하였다 하여 국사봉이라 불리어 오고 있으며 현재는 명암3리로 지명되어 있다. 명암4리(박지므레, 부리기, 가락바위)는 온양군 일북면의 지역으로서 김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며 다른 성씨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하여 외금리(밖김호례) 또는 앞산에 우는 바위가 있어 명암이라 하였는데 바위가 울면 마을에 재앙이 생겨 바위를 부취 지금은 없어졌으며 산부리에 위치하여 부리기는 지금 없지만 가락과 같은 바위가 있다 하여 가락바위가 산재한 세 마을을 합하여 명암4리라 칭하였다.

<조사당시 명암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명암리는 용두리 1구를 지나서 탕정 면사무소 옆 도로를 따라 작은고개를 넘으면 나오는 마을이 명암리 1구 행승리이다. 도로 사이로 윗말, 아래말로 나뉘어진다.

명암리 2구 장무기는 용두 2구를 지나가면 그 고개를 넘으면 바로 장무기가 나온다. 또다른 길은 명암리 4구 가락바위를 거쳐서 들어가는 길도 있지만,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장무기는 증좌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국사봉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명암리 3구를 가려면 명암리 4구에서 올라가는 길과, 동산리에서 아산 레미콘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아산 레미콘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포장되어 있고 빠르다.

명암리 4구는 증좌미 남쪽에 있는 마을로서 밧지므로, 부리기, 가락바위로 나뉜다. 밧지므레는 지므레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바깥지므레를 줄여서 밧지므레라 부른다. 갈산리에 있는 마을이 안지므레이고, 갈산리와 명암리의 경계이기도 하다. 부리기는 밧지므레와 마주보고 있다.

2) 현황

행승리마을은 남자 88명, 여자 90명으로 총 178명으로 2,3,4리 보다 인구가 제일 많고, 59가구 중 5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장무기 마을은 남자 67, 여자 58명으로 총 125명이 살고 있으며 41가구 중 6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정좌미마을은 1,2,4리 보다 인구가 적으며 호구수도 적은 34가구가 산다. 그 중 88%가 농가이다. 명암 4리인 밧지므레마을은 남자 77명, 여자 76명. 총 153명이며 52가구 중 6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분포

구 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1리 행승이 마을	178명	88명	90명
2리 장무기 마을	125명	67명	58명

3리 정좌미 마을	96명	51명	45명
4리 박지프레 마을	153명	77명	76명

- 생업

구 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1리 행승이 마을	100%	58%	42%
2리 장무기 마을	100%	68%	32%
3리 정좌미 마을	100%	68%	32%
4리 박지프레 마을	100%	62%	38%

농경지 현황을 보면 장무기 마을은 논이 32ha로 제일 많고, 밭은 박지프레 마을이 22ha로 많다. 특산물인 포도를 많이 재배한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1리 행승이 마을	41ha	23ha	18ha
2리 장무기 마을	50ha	32ha	18ha
3리 정좌미 마을	34ha	18ha	16ha
4리 박지프레 마을	41ha	19ha	22ha

- 농기계 보유 현황

구 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분무기
1리 행승이 마을	29대	2대	9대			47대
2리 장무기 마을	30대	1대	18대	2대		27대
3리 정좌미 마을	15대	1대	5대		2대	16대
4리 박지프레 마을	34대	1대	11대	3대	5대	36대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문고	사물놀이 악기
1리 행승이 마을	1개소	1		
2리 장무기 마을	1개소	1		1
3리 정좌미 마을	1개소	1		1
4리 박지프레 마을	1개소	1		1

- 연령별 분포(명)

구 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1리 행승이	8	18	10	12	26	35	50	15	

마을									
2리 장무기 마을	2	1	4	15	24	35	40	6	
3리 정좌미 마을	3	4	2	7	10	15	31	13	
4리 박지므레 마을	5	12	8	10	20	25	50	10	

- 성씨별 분포

구 분 마을명	김씨	이씨	손씨	서씨	기타
1리 행승이 마을	14%	24%		15%	47%
2리 장무기 마을		5%	76%		19%
3리 정좌미 마을	18%	47%			35%
4리 박지므레 마을	34%	19%		8%	39%

- 학생 분포(명)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1리 행승이 마을	12	6	8	4
2리 장무기 마을	3		2	
3리 정좌미 마을		2	2	2
4리 박지므레 마을	6	3	4	7

- 최고령자

1리는 85세의 조창선 할아버지이시고, 2리는 83세의 손석철 할아버지이시고, 3리는 81세의 윤진원 할아버지이시고, 4리는 98세의 이순분 할머니이시다.

- 호당 평균 소득

1리 년/1,600만원, 2리 년/800만원, 3리는 년/1,000만원, 4리 년/1,000만원

3) 자연경관

행승리는 면소재지에 인접한 마을로 삼면이 모두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동쪽과 남쪽으로 논이 펼쳐져 있다. 장무기는 명암리 마을 중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마을 주변은 모두 논이고 장무기 마을 오른쪽으로 도로가 나있다. 그도로를 건너면 저수지가 보인다. 정좌미는 북쪽과 남쪽에 논이 펼쳐져 있으며 주위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지므레에는 탕정초등학교가 있으며 마을 양옆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고 그 논들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다.

이 마을은 둘레가 거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정좌미 뒷산의 이름이 통미라하여 그 산의 모양이 마치 시루처럼 생긴, 산 아래에 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서 정좌미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이다.

4) 마을 변천과정

본래 온양군 일북면의 지역으로서, 울바위가 있으므로 명암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행승리 외금리의 아산군 원남면의 정좌리, 창덕리를 병합하여 명암리라 하여 아산군 탕정면에 편입됨.

5) 입향

명암리 1구는 서씨, 이씨, 남씨가 터를 잡고 있었으나, 지금은 각 성들이 골고루 살고 있다.

장무기 가구수는 40호가 조금 넘고 그중 손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에 터를 잡은 원거인은 손씨들일 것이라 한다.

#### 6) 지명

증좌미(정좌리) : 명암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뒤에 시루 모양의 통미가 있음.

가락바위 : 증좌미 남쪽에 있는 마을 가락바위가 있음.

밧지므레 : 지므레 바깥쪽에 있는 마을

부리기 (부역리) : 가락바위방죽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 산부리에 있음.

장무기 : 증좌미 서쪽 국사봉 서쪽에 있는 큰 마을 옛날에 장사가 나자, 곧 날아서 벽 천장에 붙으므로 그 부모가 겁이나서 그 겨드랑이에 붙은 것을 베어 냈다함. 바깥지므레 갈산리의 지므레를 안지므레 라고 하고 명암리의 지무레를 바깥 지무레 라 하는데 두마을은 가까이 붙어 있음.

행승이 : 부리기 아래에 있는 큰 마을

통 미 : 증좌미 뒤에 있는산.

장무깃들 : 장무기에서 가락바위까지 이르는 들

증좌밧들 : 증좌미에서 가락바위까지 이르는 들.

모산너머 : 증좌미 안쪽에 있는 골짜기

작약골 : 증좌미 서쪽 국사봉 밑에 있는 골

절 골 : 장무기 동북쪽골 국사봉 서쪽에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심하여 없어졌다 함.

조막골 : 가락바위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가락바위 : 가락바위 동쪽에 있는 바위 모양이 가락과 같이 생겼는데 오래 전에 없어졌음.

가락바위 방죽 : 가락바위 앞에 있는 저수지 , 위에 큰 저수지가 있고 아래에 못 같이 막아서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을 잘 이용하게 되었음.

장무기-방죽 : 장무기 앞에 있는 방죽

장무기위 : 가락바위 앞에 있던 보. 현재 가락바위 저수지가 되었음.

가락-보 : 가락바위 앞에 있던 보. 현재 가락바위 저수지가 되었음.

장승-배기 : 부리기 아래에 있는 거리. 장승이 있었음.

#### 7) 전설

##### <할미바위>

『윗말 뒷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할머니처럼 생겼다해서 할미바위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의 권곡동인 옛지명 권구령이에서 행승리 뒷산에 있는 바위가 보였다고 한다. 그 할미바위가 보여 권구령이에서 과부가 많이 생겼다고 하여, 권구령이 사람들이 그 할미바위를 부수었는데 그 뒤로는 과부가 생기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그 주위에 할미바위가 부서진 조각들만이 남아있었다. (지명에 관한 전설)지므레에서는 옛날에 김씨가 많이 살면서 효부와 열녀가 많이 났으므로 김호레라 하던 것이, 지므레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옛날에 외금리라 불리웠었는데 그 이유도 김씨가 많이 살아서였다.

##### <명암바위>

전설은 이러하다. 『옛날 탕정면 명암리 4구 앞산에 큰 바위가 있었다. 명암은 흰색의 바위로써 멀리서 보면 바위모양이 흰옷입은 상주가 구부러서 곡을 하는 모습이었고, 상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울음소리는 3일 밤낮을 두고 계속 들렸다 한다. 이상한 일은 그 동네에서는 전혀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인근부락에서는 곡소리가 분명하게 흰 바위쪽에서 들렸다고 한다. 곡소리가 그치고 나면 이윽고 그 동네에서는 불길한 일이 꼭 일어나곤 하였는데, 그후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의논을 한 결과, 그 흰바위를 깨뜨리려 해도 그 바위를 깨뜨릴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부락인들을 총동원하여 머리쪽을 깨뜨렸는데 빨간피가 나왔다고 한다. 그후로는 불길한 울음소리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 사건이후로 울음소리가 나는 바위가 있었다하여 명암리로 불리게 된 것이었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장무기에서는 동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한 번씩 모여 동네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이경사시에는, 동네 주민들 모두 도와주고 있다. 마을 전통 놀이는 없었으며, 요즘 농촌이 대부분 그렇듯이 젊은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다. 명암4리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복숭아 재배를 많이 하였는데, 지금은 포도재배를 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년에 한 번씩 김씨들이 시제를 지내고 있고, 추석날이면 청소년 노래자랑을 열고 있는데, 벌써 7년이 넘었다고 한다. 비록 마을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애경사가 있을때면 어김없이 찾아가 돕는다고 한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이마을에는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이 조사되지 않았다.

10) 종교단체

명암성결교회 탕정면 명암2리 34번지 목사 김영운 종파 : 성결교

11) 공장현황

대풍화학공업(주) 대표 이경구 명암672-14번지 생산물품:일반프라스틱피름씨트

12) 마을의 특성

이 마을은 탕정면의 한 마을로 이마을 역시 포도재배를 주로 함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일익을 하는 마을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이 그러하듯 포도작목반을 구성하여 공동출하하고 있다. 이런이유로 이 마을 주민들은 서로 매우 친하게 지내며, 마을 분위기도 매우 좋다.